

TV 29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채널A	KBS1	KBS2	MBC	KBS/SBS	EBS
⑥	50 부부극장 콩깍지(재)	00 KBS 뉴스광장	00 굿모닝 대한민국 1~2부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10 세계의 눈(특선)
⑦		50 인간극장		10 광주MBC 뉴스투데이 50 MBC 아침드라마 '나 혼을 잡아'	00 KBS 뉴스자금 30 남도의 아침	00 곤 30 꼬마비스타요 45 로보아풀리
⑧	00 굿모닝 A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30 아침연속극 '나인의 당신'	00 딩동댕 유치원 35 병기대장 뽕뽕이 50 모니터요
⑨	00 신문이야기들직구쇼	30 KBS 뉴스	00 TV 소설 <순금의 땅>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 뉴스 45 기분 좋은 날	10 좋은 아침	05 코코롱2 20 생활의 비법
⑩	10 팩트10	00 설기획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55 틈틈 생활체조	50 지구촌 뉴스		30 SBS 뉴스	00 한국기행 20 명의의 길 50 최고의 오리비결
⑪	20 정치이야기 是非非	00 한국인의 밥상(재) 55 바른말 고운말	10 스포츠 타임 20 사랑의 가족 45 일일 드라마 '천상여자'(재)	00 주말특별기획 '황금무지개'(재)	00 SBS 생활경제 40 KBS 생활뉴스	20 세계테마기행
⑫	30 이영돈PD의 먹거리 X파일(재)	00 KBS 뉴스 12	25 인간극장 스페셜(재)	00 MBC 정오뉴스 20 주말드라마 '시랑해서 남주나'(재)	00 SBS 12뉴스 30 건강클리닉	00 EBS 정오뉴스 10 EBS 초대석
⑬	40 뉴스특보	00 시사기획 창(재) 50 TV동화 빨간 자전거 (재) 55 400회 특집 러브 인 애시아(재)	35 미리보는 2014 소치 동계올림픽(재)	30 파우자 민들레(재)	10 겨울방학생활 2학년 30 겨울방학생활 4학년 50 겨울방학생활 6학년	
⑭	50 직인직설	50 KBS 파노라마 플러스 (재)	00 KBS 뉴스타임 10 세상의 모든 다큐(재)	35 컬투의 베란다쇼 스페셜	00 SBS 뉴스 10 문화가 중계(재)	10 천하무적 한자 900 15 장난감 그녀의 노디 30 직인직설 치킨턴
⑮		00 2014 설날장사 씨름대회<(태백장사)>	00 후토스 잃어버린 숲 (재) 25 꼬미신선 터오(재) 55 TV유치원 콩닥콩	00 MBC 경제 뉴스 10 라이스앳 40 헬로 키즈 술속미를 봄봄봄	10 SBS 이슈 인 사이드 00 열려라 바다스 30 바둑과 전구들 45 끄文化传播	
⑯	00 박종진의 뉴스쇼 쾌도난마 1~2부	55 틈틈 생활체조(재)	25 코파 반장의 동화 수사대(재) 55 위기탈출 넘버원(재)	30 똑? 똑! 퀴즈 스클	00 꿈의 보석 프리즘 스톤 30 꾸러기 팀구생활	00 딩동댕 유치원(재) 20 아기고글리 둘둘 30 코코롱2 45 모니터요
⑰		00 KBS 뉴스 5 20 동물의 세계 40 설기획 6시 내고향 (고향 기는 길)		00 MBC 이브닝 뉴스	00 SBS 뉴스 퍼레이드 05 KBS 저녁뉴스 15 내미음의 크래프스	00 방귀대장 뽕뽕이(재) 15 꼬마비스타요 30 풍성한 푸른 블루뽀 45 로보아풀리
⑱	00 채널A 뉴스 TOP10		00 KBS 글로벌 24 30 생생 정보통	20 불만제로 UP	05 전국 TOP10 가요쇼 (재)	00 두디디콤 30 생방송 특별 보니하니
⑲	20 웰컴 투 시월드 (재)	00 KBS 뉴스 7 30 필통	50 일일드라마 '천상여자'	15 일일연속극 '빛나는 로맨스' 55 MBC 뉴스스토	10 시사저널 따따부파 20 일일드라미 '침구 멀하나'	30 두기티侵害
⑳	30 설특집 관찰카메라 24시간	25 일일연속극 '시ঙ은 노래를 타고'	30 생생 정보통 플러스 55 비타민	55 MBC 특별기획 '제왕의 떨수백향'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한밤의 TV 연예	00 EBS 뉴스 20 다문화 시랑 50 세계테마기행
㉑	40 채널A 종합뉴스	00 KBS 뉴스 9		30 컬투의 베란다쇼	30 한국기행 50 EBS 다큐프리임	
㉒	50 채널A 스포츠 뉴스	00 생방송 집중토론 50 리얼체험 세상을 품다 (감격시대)	00 수목드라마 '미스코리아'	00 수목미니시리즈 '별에서 온 그대'	45 극한직업	
㉓	00 이영돈·신동엽 전원맨(재)	30 KBS 뉴스라인	10 설특집 황금어장 리디오 스타	15 짹	15 세계의 눈	
㉔	10 모큐드라마 싸인(재)	30 네트워크 기획 문화산책	35 MBC 뉴스 24 45 설 특선영화 '내 아내의 모든 것'	35 소치 2014 특집 별을 쓰다	10 한국영화 특선 '살인의 추억'	

TV 하이라이트



태양계 내 생명체 존재 가능성은

세계의 눈(EBS·밤 11시 15분)=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태양계 내 위성들을 소개한다. 토성 탐사선 카시니호가 태양의 가장 큰 위성인 타이탄에서 액체 메탄과 암모늄으로 된 호수를 발견했다. 타이탄은 지구 외에 표면에 액체가 있다고 알려진 최초의 천체이며

대기 중에서 유기물질이 감지되기도 했다. 역시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에 마치 간헐천처럼 표면에서 얼음이 분출돼 우주로 수백 킬로미터씩 치솟는 광경이 목격됐다. 과학자들은 엔셀라두스를 생명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은 곳으로 손꼽고 있다. 목성의 위성 중에서 이온에서 얼어붙은 표면 아래 바다가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우연한 기회에 '미수'가 '119 구조대'의 의용 대원으로 일하게 되면서 같은 구조대에 있는 '강일'에게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적극적으로 다가간다. '강일'에게 애정공세를 펼치는 '미수'. 그리고 그런 그녀에게 깨칠함으로 일관하던 강일 역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한다. 다른 이들의 생명은 구하며 살지만 정작 자신의 상처는 돌보지 못하는 '강일'과 '미수'.



상처 받은 남·여 깨칠 연애사

반창꼬(KBS2·밤 11시 10분)=매일 목숨을 내놓고 사건 현장에 뛰어들지만 정작 자신의 아내를 구하지 못한 상처를 간직한 소방관 '강일'. 매번 제 멋대로 말하고 거짓없이 행동하며 상처도 사랑도 없는 척하지만 단 한번의 실수로 위기에 처한 의사 '미수'.

“‘응사’는 좋은 추억을 함께 나눈 친구 같아요”

중영한 tvN ‘응답하라 1994’ 쓰레기役 정우

지난해 말 선종적인 인기를 끌었던 tvN 드라마 ‘응답하라 1994’(이하 응사)의 마지막 활영이 끝난 순간, 남자 주인공 정우(33·사진)가 가장 먼저 한 행동은 뜬금없게도 활영장의 ‘난로’를 끄는 것이었다.

사람들이 흥분하면 사고가 나기 쉽다는 생각에 그리웠다는 정우는 연출을 맡은 신원호 PD와 포옹을 하는 시점에서 비로소 눈물이汪汪해졌다. 드라마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난 시점에 과거를 돌아보는 그의 표정에는 극중 ‘쓰레기’가 지나고 있었던 진중함과 장난스러움이 모두 묻어나왔다. 지난달 중영한 tvN 드라마 ‘응사’에서 남자 주인공 ‘쓰레기’ 역할을 맡아 연열한 정우를 최근 서울 종로에서 만났다.

“일단 아무 사고 없이 드라마를 잘 끝낼 수 있어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사실 아직 작품이 끝나지 않은 것 같아요.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마치 그 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작품에서 남자 배우들은 본명이 아닌 ‘애정’으로 불리웠는데 그의 이름은 다른 아닌 ‘쓰레기’. 처음 제안을 받고 놀랐을 것 같다.

“애에?”하며 놀랐죠. 의아하기도 하고, 재미있기도 했어요. 잘못 연기하면 진짜 ‘쓰

레기’라는 소리를 듣겠다는 생각도 했죠.(웃음) 그러고보니 쓰레기라는 단어의 이미지를 바꿔준 드라마가 아닌가 싶네요.”

그는 초반에는 충격적일 정도로 한없이 망가지지만, 드라마가 진행될수록 로맨틱하게 변해면서 반전 매력을 선보인다. “일단 몇 있게 연기하지 말자고 생각했어요. 상황 자체가 굉장히 멋진 캐릭터니까 연기는 맘가져야 한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상황에 따라 보여지는 모습의 차이가 커진 것 같아요.”

제작진은 전작 ‘응답하라 1997’과 마찬가지로 ‘응사’에서도 ‘남편 찾기’ 추리 요소를 집어넣어 드라마 막판까지 시청자의 궁금증을 유발했다. 매회 드라마 곳곳에 뿐만 아니라 힌트를 근거로 언론과 팬의 주목이 난무했다.

“신경을 아예 쓰지 않으려 노력했어요. 저는 성나정(고아라)의 남편이 누구냐고 감독님께 여쭤본 적이 없어요. 주어진 상황에서 제가 보여줘야 하는 모습을 잘 보여주면 됨다고 생각했죠. 그래도 20화까지 찍고 나니 마지막 21화 대본이 나오기 전까지는 궁금 하더라고요.(웃음)”

그는 이어 “나정이가 칠봉이(유연석)와 이어져도 괜찮았을 것 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나정이의 마음”이라며 “시청자도 각자가



나정의 마음으로 누군가를 선택하셨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정우는 그동안 영화와 드라마에 꾸준히 출연했지만 ‘응사’로 뜨거운 전까지는 결코 뛰어난 ‘무명’ 생활을 보냈다. 스스로도 ‘신인 아닌 신인’으로 십수년을 보냈다고 말했다.

“‘응사’는 ‘참 멋있는 놈’으로 기억될 것 같아요. 굉장히 멋있는 놈으로요. 좋은 추억을 함께 나눈 친구 같은 존재 말이에요.” /연합뉴스

1월 29일(금 12월 29일 庚子)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36년생 한동안 계속 될 것이다. 48년생 습관화 되지 않도록 하라. 60년생 관점을 달리해보자. 72년생 사소한 문제가 발단이 되어 복잡해질 수도 있다. 84년생 난해한 형세이니 유기적인 관계 속에서 풀어야.

행운의 숫자 : 92, 81



42년생 인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될 것이다. 54년생 기다리고 있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66년생 알면서도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더 큰 모순이니라. 78년생 치밀하지 않으면 결손이 생기겠다.

행운의 숫자 : 11, 44



37년생 들어주는 것이 훨씬 더 낫다. 49년생 덩달아 복 받을 수 있다. 61년생 상대의 의중을 왜곡시켜서는 아니 된다. 73년생 일이 다 벌어진 후에 손을 쓰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 85년생 단순한 문제가 아니다.

행운의 숫자 : 40, 31



38년생 과잉 반응을 보일 필요까지는 없도다. 50년생 이제부터 본격적인 상황이 전개 될 것이라. 62년생 좋은 일을 해 주고도 빛을 보지 못 할 수이다. 74년생 점점 한기가 사라지면서 따뜻해지리라.

행운의 숫자 : 64, 17



39년생 비중 있는 곳에 시간 할애를 하는 것이 좋다. 51년생 배후에서 주도 하는 이가 따로 있느니라. 63년생 과거에 소비적인 관계에 있었던 이가 생산적으로 전환되는 모습이다. 75년생 생 미흡함이 있다.

행운의 숫자 : 02, 49



40년생 후회할 때는 이미 늦느니라. 52년생 생활에 결코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이다. 64년생 힘들 믿음에 비례하여 성과가 나타나겠다. 76년생 시간을 끌고 있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터지게 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70, 08



41년생 미리 대비하지 않으면 매우 힘든 상황이 올 수도 있다. 53년생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최상의 방책이니라. 65년생 단력적으로 대처 해야겠다. 77년생 꿩 먹고 알 먹는 일이 생기니 일거양득이로다.

행운의 숫자 : 43, 26

“전화상담도 받습니다. 광주일보 독자환영!” ☎010-9790-8237

• 자유투어는 70억 보증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자유투어

No.1 종합여행그룹 www.jautour.com

광주지점 062)371-3757

무안출발 큐슈온천 전세기 취항

1/30(목) 큐슈온천 3일

[MUX 07:05-KKJ 08:15] 849,000 원~

2/18(화), 2/25(화) 큐슈온천 4일

[MUX 07:05-KKJ 08:15] 799,000 원~

2/23(일) 큐슈온천 3일

MUX 07:05-KKJ 08:15] 549,000 원~

2/21(금), 2/28(금) 큐슈온천 3일

[MUX 07: